

## 친문의 선택은...

김경수, 대권주자 어려움 많아 ... 민주당 주류 표심 향방 촉각

### 뉴스 초점

이낙연·이재명 한쪽 쏠리지 않고  
정세균 등 제3·4후보에도 관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구도에서 친문 지지자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유죄 선고로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당의 주류 세력인 친문(친문재인)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친문 진영의 지지가 여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가운데 어느 한 편으로 쏠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권 경쟁이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의 전망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권 재창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호남 민심도 선불리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는 대선 정국의 흐름을 주시하며 결집의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내 친문 의원들은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조만간 발족하고 민주당 4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준비한다. 이를 통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높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친문 성향의 모 의원은 "김 지사의 재심 판결에 따라 현재의 양강 구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대선 구도는 각종 변수에 따라 두 세번 정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이며 정권 재창출에 방점을 두고 향후 행보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병련(민주평화국민연대)도 조만간 대선 정국 문제와 관련, 머리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더미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주 모 국회의원은 "일단 이달 내에 한 번 모여 차기 대선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예산 국회가 끝나면 차기 대선과 대선 주자 등을 놓고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대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제3, 제4의 후보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가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현재의 양강 구도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력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 총리는 내년 2-3월 총리직 사퇴와 함께 대선 경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정 총리는 지난 6일 정책 자문을 위해 특별보좌관-자문위원단(이하 특보단)을 구성했다. 총리가 정식 직제를 만들어 특보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차기 대권 행보를 위한 밑그림 아귀는 해석도 나온다. 또 정 총리를 지지하는 광주·전남지역 지지자들도 지난 7일 무등산 산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기반이 탄탄한 정 총리가 대선에 뛰어들다면 호남 표심이 나뉘는 등 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원초 친노·친문 인사인 김두관 의원과 장외의 유시민 전 장관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다면 극적으로 대권주자 행렬에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20% 초반대에 정세균 박스권 지지율을 돌파할 동력 확보에 나선다. 이낙연 대표 측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개혁 입법에 성과를 내고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승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은 이 대표에게 양날의 칼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힘이 실릴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친문 진영의 '반(反) 이재명 정서'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이 지사 측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민주당의 개혁·진보적 정체성을 살리고 정책적으로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문 진영과의 거리감을 좁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미국이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조 바이든(오른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부인 질 바이든(맨 오른쪽) 여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당선 축하행사의 무대에 나란히 서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이든 승리 ... “모두를 위한 대통령 될 것”

### 트럼프 불복 속 화합 강조 “미국은 통합·치유의 시간”

미국 11·3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승리를 선언하고 “분열이 아닌 단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의 야외무대에서 한 승리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선거를 통해 표현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 확실한 승리, 우리 국민을 위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승리를 선언했다.

이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패자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온 전통을

124년만에 깨고 소송 입장을 밝히며 불복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분열을 극복하고 지지층간 양극을 씻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듯 연설의 상당 부분을 화합과 단합을 역설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미국에서 악마처럼 만들려고 하는 음울한 시대는 지금 여기에서 끝내기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모든 이들이 오늘날 실망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나 자신도 두 번 진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과 2008년 대선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을 뚫지 못하고 낙마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서로에게 또다른 기회를 주자. 거친 수사를 뒤로 하고 열기를 낮추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며 귀를 기울일 시간”이라며 “우리가 진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미

국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정은 수확할 시간, 씨를 뿌릴 시간, 치유할 시간이 있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며 “지금엔 치유를 할 시간”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민주당원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통치하겠다고 “붉은 주(州)와 푸른 주를 보지 않고 오직 미국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했다. 붉은색과 푸른색은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징색이다. 그러면서 정당을 가로지르는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문제 삼아 소송 제기과 일부 경합주 재검표 요구를 하는 등 불복 입장을 밝히는 터라 새 대통령 확정까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고 “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며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바이든 당선 축하... “같이 갑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 8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두 분과 함께 일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 또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트위터 축하메시지는 바이든 당선인이 성명을 통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지 약 8시

간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식적인 외교수단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승복 등으로 미국 대선에 마침표가 찍힌 이후 문 대통령은 축전 및 전화통화 등 바이든 당선인과 공식적인 정상외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겨울이 ‘성큼’

광주·전남 기온 ‘뚝’  
서리 내리고 얼음도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등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출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 최저기온은 0~8도, 최고기온은 12~14도 분포로 평년수준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복사냉각이 더해지는 아침의 경우 기온이 더 떨어지겠으며, 담양과 곡성 등 산지에는 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9일~15일) 광주·전남 최저기온은 0~10도, 최고기온은 15~1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많아도 너무 많은 아파트 하자 ▶6면  
프로야구 도전의 시즌 격변의 스토리 ▶18면  
‘국민 대통령’ 2020 영호남 문화대축전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용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입문의]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공)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정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선·상고 21실 | 운동 및 문화회점시설 3개소

모텔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텔하우스: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